

공구별 낙찰금액 예정가 50~60% 그쳐

영산강 사업 부실공사 우려

2000억대 하구둑 반값수주 등 대부분 저가 입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각 공구별 낙찰금액이 공사 예정금액의 50~60% 수준에 그쳐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남양건설이 2천억 원대의 영산강 하구둑 2공구 사업을 반값에 수주했다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엔 영산강 7공구 사업도 예정금액의 65%에 불과한 금액을 써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지역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두 7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1년 완공 예정인 영산강 7공구 사업은, 예정금액의 65.19%인 353억 2천만 원을 입찰금액으로 써낸 대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번 입찰에서 대진종합건설컨소시엄은 7순위에 그쳤지만 1~6순위

까지의 업체들이 예정금액의 60% 초반에 불과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시, 조달청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자동으로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로부터 공사발주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1~6순위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업체들의 과거 공사실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를 업체가 공사진행이 어려울 만큼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써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달청은 또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자체 조달가격도 정부 조달가격의 8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밝혀내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된 대진종합건설컨소시엄도 낙찰률이 예정금액의 65%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된 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75~90% 사이에서 낙찰자가 가려졌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해 ‘무조건 공사부터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저가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진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영산강 7공구 사업은 2011년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북구 용전동 용산교까지 모두 14.08km 구간의 하도를 정비하고, 문지에 자전거도로 29.44km와 산책로 17.5km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하천 내식생 복원을 위한 습지 조성, 어도 설치, 계절풍경원 조성, 데크 산책로 설치 등 세부사업도 사업에 포함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섬진강 ‘습지총량제’ 도입

국가 전체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별, 권역별로 ‘습지총량제’가 도입되고 2015년까지 국토 면적의 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국가습지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경우 똑같은 면적의 생태 인공습지를 조성

하고 관리토록 의무화해 전체적인 습지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섬진강, 지리산, 임진강~비무장지대, 동해석호, 태백산,內포, 만경~동진강, 제주도, 형산강, 남강~황강 등 10개 소권역에는 단위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습지총량 관리를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습지 항목을 자연생태환경 분야 세부항목에 별도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전교조 명단 알 권리 차원서 공개했을 것”

광주서 교육정책 특강 이주호 교과부 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교원단체 가입 교사의 명단 공개와 관련,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고를 방문한 뒤 광주 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명단공개를 놓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행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

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차관은 또 교원평가제의 시행으로 교원의 업무가 급증했다는 점에 대해선 “연 4회 공개 수업의 무화물이 교사에게 크게 부리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교육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교원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부담이 많다고 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강제(공개)가 아닌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확대할 예정인 50%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까지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교원업무 경감 우수학교’인 전남고 등을 방문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온·오프만평

- 김종우



물증은 없고 합리적인 이성이 더욱 없고...

광주서 교육정책 특강 이주호 교과부 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교원단체 가입 교사의 명단

공개와 관련,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고를 방문한 뒤 광주 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명단공개를 놓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행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

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차관은 또 교원평가제의 시행으로 교원의 업무가 급증했다는 점에 대해선 “연 4회 공개 수업의 무화물이 교사에게 크게 부리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교육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교원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부담이 많다고 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강제(공개)가 아닌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확대할 예정인 50%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까지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교원업무 경감 우수학교’인 전남고 등을 방문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사원모집

본사에서는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분야	구분	인원	비고
편집국	여	○명	포토샵 가능자
전산직	여	○명	
광고영업	남 여	○명 ○명	연령제한 없음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 기숙사 제공 / 1일 3식 제공 / 4대보험

• 난치휴가 / 주 1회 휴무제공

• 하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등 기타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 신고전화 : 061-320-7710

• E-mail 접수 : mannerwang@hanmail.net

• 문의전화 : 061-320-7716(최관수)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 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 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c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 등록된 상담사입니다.

강화도發 구제역 육지 확산

전남도 “유입 막아라” 비상

상황실 설치 등 대책 마련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시의 청소농가로 번지는 등 육지까지 확산하면서 전남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21일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16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긴급 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 역시 지역 축산 농가로의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 마련이 골몰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강화와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중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타입(O형)이라는 점에 주목, 시·군 공무원 및 공·개업수의사 등 427명으로 이뤄진 예찰요원을 투입해 도내 축산 수입검증 사용농가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농장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구제역이 유입되더라도 하면 지역 축산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특히 충남 보령 한우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주목하는 한편,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강화와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중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타입(O형)이라는 점에 주목, 시·군 공무원 및 공·개업수의사 등 427명으로 이뤄진 예찰요원을 투입해 도내 축산 수입검증 사용농가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농장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채소 피해 광주·전남 25억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수박·참외·딸기·오이·멜론 등 시설채소 피해가 급증하자 시설작물의 생육 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 전남을 비롯한 전국 피해 농가에 복구비로 모두 34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껏 공들여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를 봤는데, 단순하게 복구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 연기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2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20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탄압 속에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표를 강행할 수 없다”며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쟁취될 때까지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총투표에 대한 불법 규정, 투표 참가자에 대한 불

이익, 간부 중징계 협박 등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적인 직권남용이 민주화